“자치분권은 재정분권서부터”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 전북서 열려… 文 정부 성과 · 포용국가 실현 토론

전북도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과학학회가 공동 주최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 오후 1시 10분에 열린 개회식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호인 전주대총장, 김동현 한국재정공제회 이사장,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 전문가 및 일반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 이호인 전주대학교총장의 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됐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으로, 반드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에서도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 첫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소수 지자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균특이양 재정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각 시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24일 완주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에서 제9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 한뜻 모아 환경복지 실현’

완주서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성료

소통의 장 마련… 민관협력 가교역할 ‘톡톡’

전북도는 지난 24일 완주군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에서 제9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도내 환경관련 유관기관 및 공무원, 민간단체 등 700여명이 참여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 민관협력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박성일 완주군수, 송성환 도의장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이 참석하여 그간 도내 환경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올해 초부터 이슈화된 미세먼지, 불법폐기물, 악취 등 환경현안과 고질화된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환경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며 민선7기 도정지표 중 하나인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국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인들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하고, 이를 단속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불법 폐기물 3만7180톤에 대해 국비 30억을 확보하고, 전량 연내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품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객리단길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공용컵 사용 시범사업 및 범도민적 캠페인으로 지상파 발송에 송출할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

이날 완주군 모악산자락에 모인 환경인 700여명은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다짐하며 소통·감성·나눔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올해 초 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시군 부서장들과 주요시책 설명회를 갖고 도와 시군이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군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환경분야 업무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농기원, 우수농식품 연구회 현장교육 실시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최근 선진사업장 견학, 실습 및 벤치마킹·정보교류 등 전북 우수농식품 연구회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운영되는 백석올미마을 김금순 대표의 가공·판매·체험 현황,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실을 활용하여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고 매실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커피나 파파야 등 열대작물을 생산하는 ‘뜨렌비꼼’(정현석 대표)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제품생산·상품화·전자 상거래 등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직접 재배한 꽃으로 전통 식생활 건강차 만들기 및 꽃차 체험을 했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관했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진안 꾸찌뽕나무, 임실 따담 등 도내 농업인 가공사업장 8개 업체의 우수가공제품과 미주, 유럽 등 40개국 1500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제품 전시 등을 견학함으로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전북 우수 농식품 연구회 소영진 회장은 “우수사업장의 경영전략과 성공사례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본인 사업장에 접목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Haccp 위생, 브랜드 개발 등 적극적인 현장 컨설팅과 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 국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온라인 소셜커머스 지원 등 도내 우수가공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용담호, 상수원 유입하천 수질상태 ‘매우좋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호 유입 하천 수질 조사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모든 지점에서 하천 환경기준 Ia(매우좋음)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용담호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담호로 유입되고 있는 주요 하천들을 매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유관 기관과 공유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조사 결과 하천 오염 지표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모든 지점에서 1 mg/L 이하로 나타나 가장 좋은 하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천 환경기준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BOD 기준 1 mg/L이하 Ia(매우 좋음)~10 mg/L 초과 VI(매우 나쁨) 등급으로 총 7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북도민 상수원수인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기준이 Ia 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식품메카 전북의 위상 함께 높여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식품엑스포 참가기업 7월 말까지 모집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업체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과 바이어, 식품연구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발효 신제품과 기술정보, 최신 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박람회로 무역상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과 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23억 4000만원의 현장 소비자 매출 실적을 올린 발효식품엑스포는 지방 식품전시회로는 유일하게 2010년 행사부터 2018년 행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 전시회에 9년 연속 선정되며 식품메카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전라북도 대표 국제행사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20개국 38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우수 전통식품과 트랜드를 반영한 R&D 기반 제품의 참여 비율을 높여 이전보다 더욱 다채롭고 이색적인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물진흥원에서는 발효식품엑스포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엑스포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수시 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참여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생물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 바이어, 참관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진성 기자